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무속서사시 비교

- 당신본풀이와 미야코지마(宮古島)의 후사(フサ)를 중심으로 -

이경애*

- < >
1. 들어가는 글
 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마을신화적 면모
 3. 미야코지마 후사의 마을신화적 면모
 4. 당신본풀이와 후사의 마을신화적 특질 비교

국문요약

지역적 공질성이 나타나는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무속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서사시와 신화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승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수호신이나 조상신을 섬기는 무속 제의가 진행되는 마을 신화와 제의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의에서 불러지는 무속서사시는 신의 출자를 밝히면서 마을과 신의 관계, 신과 사제자의 관계 등을 다룬다. 마을제의에서 전승되는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의 후사의 비교 고찰을 통해 무속서사시의 마을신화적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주도 당제의에서 불러지는 당신본풀이와 미야코지마의 우야-안에서 전승되는 후사를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전승의 엄격성이 나타나는 미야코지마의 무속신앙과 신화, 의례는 무속적 원시성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마을과 개인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무속신앙과

* 경기대학교

신화가 집단에서 개인화 되어 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하고 마을신화와 제의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두 지역의 신앙 집단으로서 마을과 개인(집안)의 관계, 제의와 서사시의 비교를 통해 무속신앙과 무속서사시의 공시적·통시적 고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주제어 : 마을신화, 마을제의, 무속서사시, 무속신앙, 무속제의

1. 들어가는 글

무속서사시는 무속신앙에서 섬기는 신들에 대한 내력을 푸는 구비서사시이다. 무속서사시는 섬기는 신들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신성성을 지닌 신화로서 무속적 제의에서 사제자에 의해서만 구현되어야 하는 전승의 엄격성과 제한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속서사시에는 전승집단의 세계관·우주관·인간관 및 존재 근원에 대한 사고의 원형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각각 한반도와 일본에 속한 지역이지만 도서지역으로서 각기 독자적인 왕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기원전후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탐라국(耽羅國)이 고려 초기까지 독립국으로 존재하다가 복속된 기록이 전한다.¹⁾ 오키나와에서는 류큐국(琉球國)이 1400년경 오키나와본도(沖繩本島)를 통일하고 명나라의 책봉을 받아 정식 국가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1609년 사츠마번(薩摩藩) 시마즈(島津)의 침략으로 일본 막부정권의 영향 하에 편입되어 류

1) 진영일, <고대탐라국의 형성>,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1998. 참조.

큐국(琉球國)에서 부용국(附庸國)으로 전락하고 1879년 일본에 정식 편입된다.²⁾

탐라와 류큐는 도서지역의 이점을 살려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한 경제적 재원을 마련하고, 국제정세의 흐름과 정보에 밝은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류큐에 관한 기록은 고려 말부터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1389년 류큐의 중산왕(中山王) 사토(察度)가 사신을 보내어 왜구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고려인의 송환과 방물을 전하고, 고려에서는 김윤후 일행을 류큐에 파견해 포로를 송환한 답례를 전하기도 하였다.³⁾

조선과 류큐의 교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430여 회에 달한다. 그 가운데 제주도과 오키나와의 교류는 세조 3년(1457년)부터 순조 32년(1831년)까지 약 20여 회에 달하는 기록이 전하는데, 주로 두 지역의 표류인과 그에 대한 조선과 류큐의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⁴⁾ 이러한 문헌기록을 통한 역사적 관점에서 물질문화의 교류, 또는 조선과 류큐의 교류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⁵⁾

제주도와 오키나와 연구는 서사시 전반의 포괄적인 비교, 신화와 서사시 및 의례의 비교 등에 관해서 진행되어 왔다. 조동일은 제주도와 류큐를 구비서사시의 측면에서 다룬 바 있다. 한국과 제주도, 류큐와 미야코지마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일치하지만, 미야코지마의 구비서사시

2) 아사토 스스무(安里進), <유구왕국의 역사와 문화>,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2007. 참조.

3) 임동권, 《한국에서 본 일본의 민속문화》, 민속원, 2004. pp.147-148

4) 진영일, <제주와 오키나와의 교류사>,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2007, p.220

5) 하우봉 등, 《조선과 유구》, 아르케, 1999. 조선과 유구의 교류 관계를 사절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질문화 및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명과의 책봉관계에서 두 국가의 교류에 관한 상호인식을 문제 삼았다.

와 류큐의 ‘오모로’ 사이에는 이질성이, 제주도의 구비서사시와 한국의 구비서사시 사이에는 동질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오모로’가 중세서사시로 변질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⁶⁾ 김현선은 한국의 <창세가>와 유구의 <불씨(미륵과 석가)>를 창세신화적 관점에서 다루었고,⁷⁾ 제주도 <초공본풀이>와 유구 <思松金>을 무조신화적 관점에서⁸⁾, 그리고 내림굿이라는 제의와 본풀이와의 관련 양상을 비교한 바 있다.⁹⁾ 최근 정진희는 오키나와의 미야코지마에서 전승되는 니리, 하라이구이 등의 신가(神歌)와 문헌기록을 통해 제주도와 미야코지마의 신화가 외부권력의 간섭에 의해 재편되는 양상을 비교한 바 있다.¹⁰⁾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제주도와 오키나와, 제주도와 미야코지마의 역사·문화적 교류, 서사시와 신화의 비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지역이 지역적인 공질성의 바탕 위에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진행되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오키나와는 무속적 신앙을 바탕으로 한 서사시와 신화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전승되는 공통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제주도와 오키나와에 무속서사시가 공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마을마다 독자적인 신화를 갖추고 제의의 실현양상으로 무속서사시와 의례가 전승되는 점이 각별

6)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7) 김현선,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2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8) 김현선,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민속학연구》 제10집, 2002.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6집, 2003.

9) 김현선, <제주도와 沖繩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회》, 2008.

10) 정진희,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하다.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수호신이나 조상신을 섬기는 무속제의를 사제자가 진행하며, 그 신에 대한 내력을 푸는 무속서사시가 구연되는 공통적인 전승기반이 유지되고 있어서 주목되는 바이다.

오키나와의 미야코지마(宮古島)는 다양한 갈래의 무속서사시가 풍부하게 전승되는 지역이다. 미야코지마에서도 가리마타(狩俣)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의와 서사시, 신화에 관한 자료의 채록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 가리마타에서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여름 풍년제와 겨울 조신제(祖神祭)가 행해지며, 이 제의에서 다양한 갈래의 신가(神歌)가 구연된다.

여름 풍년제에서는 신명(神名)을 들어 찬양하는 타-비(タービ), 파-시(ピャーシ), 니-리(ニーリ) 등이 불려지는데, 대체로 서사성이 약화되면서 교술적 서술형식이 주된 방식으로 구연된다. 겨울 조신제에서는 마을수호신·시조신 및 조상신에 관한 제의로서, 그 신들의 내력과 좌정경위를 밝히는 후사(フサ)가 불려진다.

제주도에서는 정월 신과세제, 2월 영등제, 7월 마불림제, 9월 시만국대제 등의 마을 제의가 진행된다. 그 가운데 정월 신과세제는 제주도 전역에서 진행되며 당곳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당곳에서는 마을 당신의 내력을 푸는 당신본풀이가 구연된다. 당신본풀이는 당신의 내력, 신과 사제자 및 신앙민과의 관계, 신의 직능, 당의 계보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룬다.

본고에서는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미야코지마에 전승되는 무속서사시를 비교하고자 한다. 오키나와에서도 미야코지마의 가리마타에서 행해지는 겨울 조신제와 제주도 정월 신과세제는 마을수호신과 조상신에 대한 신의 내력을 풀고,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점에서 제의적 공질성이 발견된다. 그리고 제의에서 불려지는 무속서사시는 신의

출자를 밝히면서 마을과 신의 관계, 신과 사제자의 관계 등을 다룬다. 마을제의에서 전승되는 당신본풀이와 후사의 비교 논의를 통해 무속서사시의 마을신화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마을신화적 면모

여러 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무속신앙에서는 자연현상의 질서를 나타내는 신들에서 지역공동체의 수호신, 인간의 생명현상과 관련된 신들, 사령신(死靈神), 가신(家神) 등에 이르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 무속의 신들은 인간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영역을 두루 관장하고 있는 셈이며, 각 신들이 맡은 직능과 관장하는 영역은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무속의 신앙집단은 개인적인 신앙 차원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적인 신앙 차원에까지 이른다.

마을은 각 개인과 집안으로 구성된 지연·혈연적 집단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무속적 신앙의식이 마을 생활의 저변에 퇴적되어 있어서, 개인과 마을, 집안과 마을, 마을과 마을, 마을과 국가·민족의 역사적 변천을 무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제주도의 무속신앙 가운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당곳에서 구연되는 당신본풀이는 당신의 신성한 내력을 밝히고, 당신과 사제자인 당맨심방의 관계, 신앙민인 단골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당신과 관련된 제물과 제일, 직능 등을 서술한다. 뿐만 아니라 당의 파피나 소실, 재건이나 신축, 이전 등의 사항까지도 본풀이로서 불러진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당신본풀이는 당신, 사제자, 신앙민, 당과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다.

당신본풀이가 구연되는 당곳은 마을신에 대한 공동체적인 제의로서, 당신을 모신 당(堂)에서 정해진 제일에 진행되며, 이는 마을공동체 및 구성원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목적을 지닌다. 그렇지만 마을마다 당신이 다르기 때문에 제의 내용도 다를 수 있다. 대체로 당곳은 마을의 토지 및 주민의 생활전반을 차지하여 수호하는 본향신을 모신 본향당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주관하여 정월, 2월, 7월, 9월 등 행해지는데, 특히 정월달의 신과세제(新過歲祭)는 다른 제일에 비해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이다. 신과세제는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 사이에 제일이 정해져 있으며, 당맨심방에 의해 제의가 진행되고 각 집안의 부녀자들이 제물을 차려 와서 당에 진열한다.¹¹⁾

신과세제가 이와 같이 마을 주민 전체가 동원되는 데에는, 마을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마을수호신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생업과 액운을 점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신과세제에서는 신년에 닥칠 마을공동체의 도액을 막는 절차도 진행되지만,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즈손들 궤뭇음’에서는 각 가정별로 축원을 올리고 산을 받아 액운을 점치게 된다. 따라서 마을 공동의 목적과 개인 및 가정의 목적이 동시에 달성되는 당곳이 바로 신과세제인 것이다.¹²⁾

당곳은 그 ‘당을 맨’ 당맨심방이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의의 엄격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당맨심방은 당곳을 집행하고 당신본풀이를 전승하는 주체로서, 마을신앙민인 단골층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혈연공동체인 집안들이 모여 각각의 마을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11)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p.47, p.241 참조.

12) 김현선, <제주도 곳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p.41에서는 정월달의 신과세제의 특별한 면모가 횡수막이와 같은 의례를 집단적으로 본향당신에게 마을 사람들 전체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데 발견된다고 했다.

본다면, 당신앙은 혈연과 지연을 토대로 성립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수호신인 당신과 단골들과 공통된 경험과 역사를 공유한 심방이 아니고서는 당맨심방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¹³⁾ 당맨심방은 당신과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인간의 말을 신에게 전달하는 마을공동체의 사제자적인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당굿은 <베포도업침>이라는 절차로 시작된다.

천지혼합시 시절, 하늘과 땅이 굽이 엇어 니 귀 좁쑥허여 올 때 천지가 일무꿩웨옵데다...개벽시 시절, 천과이는 즈하고 지벽에는 축허야 인7이 인이 도업하야 ... 하늘 땅 새 떡징7찌 굽이 나옵데다. ... 요 하늘엔 하늘로 청이슬 땅으론 흑이슬 중왕 황이슬 느려 합수될 때 천지인왕 도업으로 제이르자. ... 요 하늘엔 낮의는 일광이 들이 뜨고 밤의는 월광이 들이 뜰 때, 낮의 만민 백성 좇아 죽고 밤의 만민 백성 곱아 실려 죽을 때 ... 대별왕도 도업하고 소별왕도 도업허여...뒤에 오는 일광 하나 쏘와다 동이와당 진도밭제여, 밤의 월광하나 쏘아다 서이와당 진도밭제허여¹⁴⁾

<베포도업침>은 내용 전개상 천지혼합, 천지개벽, 천지인왕 도업, 선오성 별도업, 월일광도업, 대별왕과 소별왕도업 등으로 구성된다. 우주·자연·인간이 각각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과정을 축약한 창세신화로 볼 수 있다.¹⁵⁾ <베포도업침>은 초감제에서 뒤이어 구연되는 <천지왕본풀

13)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2. p.29 참조. 여기서는 당맨심방이 마을 단위의 단골을 지니고 있었으며, 애초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사람들을 단골로 삼고 마을 신당의 당맨심방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14)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이하 <무속>이라 함), 각, 2008. pp.39-41.

15) 김현선,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제 28집, 비교민속학회, 2005. 베포도업침의 창세신화적 성격과 교술성에 관해 밝힌 바

이>의 서사적인 사건 전개를 교술적으로 구성한다. 당곳에서는 창세신화적인 <베포도업침>을 시작으로 해서 당신의 내력과 계보를 밝히는 당신본풀이를 구연하기 이전에 창세적 상황 전개를 마치는 셈이다.

<베포도업침>은 우주·자연·인간 등 일반적인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기술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당신본풀이가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신의 위치가 마을에 한정되는 상황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며, 마을을 넘어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루는 신격들이 별도로 존재함으로써 당신과 일반신 등 분화된 신격의 특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본풀이는 신이 그 마을에 좌정하게 된 내력과 경위를 다룬 신화이다. 이미 마을이 형성된 상태라 하더라도 당신의 수호를 받는 신앙집단인 마을은 새롭게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마을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게 되는 내력을 다룬 점에서 당신본풀이는 신앙의 역사인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좌정으로 인해 신앙공동체로서의 마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겠다.

당신본풀이의 핵심은 당신의 내력에 있다. 어떤 신이 마을에 좌정하였는가, 어떻게 좌정하게 되었는가, 마을의 누가 신을 알아보고 모시게 되었는가, 신을 언제 어떻게 모실 것인가 등의 내용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당신의 출자와 관련하여 주로 인격신을 대상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당신의 계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처첩관계 등이 주요 논점이 되었다.¹⁶⁾

에 근거하여 본고의 논의를 진행한다.

16) 강정식, 같은 논문. 여기서는 혈연적인 관계는 서열을, 혈연이 아닌 관계는 경쟁을 통해 서열과 좌정처, 치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개별신으로서의 남성신과 여성신이 결합한 유형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당신의 계보에 따라 당신의 성격을 파악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관점이지만, 당신의 주체가 인격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의 존재 주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¹⁷⁾ 어떤 존재가 신이 되는가의 문제는 무속신앙의 핵심인 조상숭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속서사시로서 당신본풀이의 특질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당신으로 좌정하는 주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당신이 되는 경우
 - (가1) 하늘의 존재가 하강하는 경우
 - (가2) 땅에서 솟아난 경우
 - (가3) 외지에서 도래하는 경우
- (나) 인간이 당신이 되는 경우
- (다) 자연물이 당신이 되는 경우

(가1)에 해당하는 당신으로는, 제주시 해안동 <오등본향>¹⁸⁾의 대별왕·소별왕 형제신, 제주시 삼도동 <각시당>¹⁹⁾·용강동 <용강본향>²⁰⁾의 하늘 옥황상제 말쑤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천상의 존재인데 천상계의 규범을 어겨 지상으로 추방당해 내려왔다고 한다. 천상의 존재를 지상의 존재보다 고귀하거나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관념이 아닌가 생각

17)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pp.206-208. 신의 출자와 관련하여 본래부터 특수한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이거나 특수한 인간이 사망하거나 특수한 계기로 신으로 좌정한다고 했다. 현용준은 신의 출자를 당신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신과 조상신에까지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이 관점을 확장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당신에 한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18) 현용준, 《무속》, pp.526-527.

19) 현용준, 《무속》, pp.522-523.

20)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이하 《무가》라고 함), 민속원, 1991. p.341

한다. 천상계에서 추방당했을지언정 하늘에서 하강한 그자체가 우월적·초월적인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당신본풀이에서는 그러한 존재가 당신으로 좌정한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2)에 관해서는 삼성신화를 비롯한 제주도 당신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땅에서 솟아나거나 또는 외지의 경우에라도 땅에서 솟아났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솟아난 곳을 보면, 신의 좌정처이거나 한라산 일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구좌면 세화리 <세화본향>²¹⁾에서 천즈또가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났거나 중문면 색달리 <색달리본향>²²⁾에서는 ‘할로 영주삼신산 솟어께 소못뉘뵈, 을축 삼월 대보름날 아읍성제’가 솟아났다고 하는 등이 그러한 예이다.

(가3)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성신이 외지에서 솟아나 바다를 건너와서 제주도 남성신과 부부가 되거나 하는 예가 많이 발견된다. 남성신이 외지에서 도래하는 경우에는 천상의 경우와 같이 추방당하거나 역적으로 몰려서 피난오거나 구경하러 떠돌다가 왔다고 하는 등의 이유가 제시되기도 한다. 제주시 건입동 <칠머릿당>²³⁾은 ‘강남천제국 가달국서 솟아난 도원수 감찰지방관과 서해 용왕국 용왕부인이 제주 한라산에 와서 좌정한 내력을 밝히고 있다. 구좌면 송당리 <송당본향>²⁴⁾은 하상천즈 지국에서 태어난 소천국과 왕대웃성 ㄱ림질 아래에서 태어난 백주할망이 제주 한라산에서 결연하고 좌정한 내력을 다루고 있다.

(나)의 경우는 인간이 신이 되는데, 살아있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신이 되는 것이다. 안덕면 덕수리 <축일당>²⁵⁾에서는 본

21) 현용준, 《무속》, pp.570-581.

22) 현용준, 《무속》, pp.640-642.

23) 진성기, 《무가》, pp.331-332.

24) 진성기, 《무가》, pp.408-415.

향에 죄를 지어 본향의 노여움을 사서 죽은 할오방과 할오방을 따라 죽은 할망이 당신으로 좌정한 내력을 밝힌다. 조천면 신흥리 <신흥본향>²⁶⁾에서는 왜구에게 겁탈당해 죽은 박씨 할망을 당신으로 모신다. 이렇게 본다면 온전하게 죽은 인간이 아니라 원한을 지닌 죽음이거나 신앙과 관련된 죽음의 경우에는 마을과 관련하여 신으로 모셔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죽은 인간을 조상으로 관념하는 무속적 심성의 요체로서 조상신격이 마을공동체의 신격으로 자리잡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다)에서는 뱀이 조상으로 들어와 신으로 좌정하거나 특별한 사물이 인연 있는 인간과 만나 마을 전체로 신앙이 확대된 경우가 발견된다. 제주시 외도동 <두리빌렛당>²⁷⁾에서는 이형상 목사에 의해 징치당한 김녕 괴뇌깃당의 뱀(구렁이)이 무곡선의 구멍을 막아 김동지와 박동지를 살리고 김동지 부인이 이를 조상으로 모셔진다. 뱀과 관련해서는 표선면 <토산 여드렛당>을 들 수 있다. 여드렛당은 뱀이 당신으로 좌정한 내력이 아니라 이 목사에 의해 징치된 이후에 벌어지는 영험함을 보여준다. 한편 제주시 화북동 <윤동지 영감당>²⁸⁾의 석상미력돌꾼채, 조천면 신촌리 <일뢰낭거리>²⁹⁾의 석상미력돌, 조천면 함덕리 <서물당>³⁰⁾의 석석미력돌과 같이 신이한 사물이 신으로 좌정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당신본풀이에는 신의 출자를 밝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맨심

25) 진성기, 《무가》, pp.531-532. 이 당은 본향에서 가지갈라 덕수리 도리못에 좌정시켰다고 한다.

26) 진성기, 《무가》, p.364.

27) 진성기, 《무가》, pp.349-351.

28) 진성기, 《무가》, pp.336-338.

29) 진성기, 《무가》, pp.362-363.

30) 진성기, 《무가》, p.369.

방의 만남, 당신과 신앙민과의 계약, 당신의 위엄, 당신 또는 당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기도 한다. 성산면 온평리 <온평·신산본향>³¹⁾에서는 신디렛빌레 고장남밖에 좌정한 멩호부인이 문씨영감에게 풍운조화를 부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영신내’를 하다가 단골이 되어 죽자 그도 역시 신으로 좌정하여 제의를 받는다. 당신이 좌정하였으나 제의를 받지 못하자 직접 당맨심방을 선택하여 신의 영험함을 보이고 제의를 받는 내력이면서 당맨심방도 죽어서는 신으로 좌정한 사례이다.

구좌면 동북리 <동북본향>³²⁾은 굴묵밭할마님, 송씨하르바님이 좌정한 내력을 밝힌다.

(전략)

“싱가지제물로 보리쌀에 큰술 색긴 것도 조와이 하고, 서숙쌀에 큰술 색긴 건 조와이 아니 홉데다.”

“찬은 뒤신 찬을 잡수와났느냐?”

문의를 하니, 단곶에서 말하기를,

“육물(肉物)에 데흔 건 일찌 안 잡수왔습네다. 헤물로 데흔 임식도 헤초라 흐민 체수를 문들아서 잡수고 헤어(海魚)라 흐민 구워서벳기 안 잡수왔습네다. 떡으로 말하민 ‘즈손덜이 부남하게시리 기영홀게 웃다. 자꾸 친다덴다 흘 것 웃이 일년에 흐번 돌레떡이나 헤여 달라.’하고 쓸문 계란이나 좋아했습네다. 술도 아이 잡수고 감주벳기 안 잡수왔습네다.”

그 말끝데는,

“그레민 나도 할마님과 7찌 임식을 먹는데, 벨따른 임식이 흐 가지 있노라. 소주를 난 좋아흐노라. 기영하고 그 할마님 산 짝의 그영신내는 누게가 했느냐?”...(중략)

상단곶에서 말씀하기를,

31) 현용준, 《무속》, p.591.

32) 현용준, 《무속》, pp.546-552.

“누워 주무실 디는 어떤 디를 택합네까?”

“나는 인간처 사는 디 흐고는 띠와야 된다. 멀리 뱀지 말고 팽즈낭 그늘이 질 좋다. 팽즈낭 밑으로랑, 제주에 완 보니 독(石)이 좋구나. 천년을 봐도 안 부서지고 만년을 봐도 안 부서질 테니 독으로 석상을 맨들아 도라.”...(중략)

“어디가 좌정홀 만흐냐?”

“물동산 조은 디 있습니다. 천년 폭낭 만년 폭낭이 좋습네다.”

...그로부터 부락민이 변치 않고 위흐는 당입네다.

<당 메어온 신내>

췌씨하르바님-이씨할마님-정동지-박씨할마님-이씨할마님-고씨아바님
-홍씨어머님-박인주

굴묵밭할마님이 채식을 하거나 해어(海魚)를 구워서 먹지만, 육식을 하지 않는 전례를 송씨하르바님도 이어나가면서 추가 음식으로 소주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또한 좌정처가 되는 당집의 위치가 마을과 거리를 둔 곳이면서도 마을 전체를 굽어볼 수 있는 곳으로 정한다. 당신은 마을 신앙민이 마련한 석상에 앉아 마을의 일을 관찰하여 궂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관장하는 신격과 연결하는 중개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동북본향은 굴묵밭할마님에서 송씨하르바님으로 당신이 변하는 과정을 겪는데, 본풀이에 그러한 내력이 밝혀진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당신인 송씨 하르바님에게 바쳐야 하는 음식, 좌정처, 제일 등을 당신과 신앙민이 정하고, 당신이 당맨심방의 노고를 위무하면서 당맨심방이 죽으면 그에게도 제의를 지낼 것을 명한다. 당신본풀이에는 당맨심방의 계보를 밝혀놓았다. 제주시 도두동 <도두본향>³³⁾에서는 송씨할마님과

33) 진성기, 《무가》, pp.355-356.

산신백관의 출자를 밝히고, 두 당신이 도들봉 오름에 좌정한 내력을 다루는데, ‘아주 머리 썬 양반’이 나타나서 당을 허물고 당 나무도 없애버리자, 본향이 마을에 풍운조화를 주고 다른 좌정처로 옮겨간 내용을 전한다.

정월 신과세제는 마을수호신과 신앙집단의 관계를 확인하고, 신앙집단의 기원을 신에게 알려 신의 보호를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당곳으로서 신과세제는 마을당신의 내력을 푼다는 점에서 마을조상신에 관한 제의적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풍년제적인 성격을 겸한다.

당곳의 사제자는 당맨심방만이 집행할 수 있다. 마을에 거주하는 심방 중에서 당맨심방이 정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최근에는 마을과 연고가 없는 심방이 당을 매는 현상이 빈번하다. 당신본풀이의 전승에 있어서도 신의 좌정처와 신명, 가지가른 당의 계보, 제일, 직능 등 교술적 내용만을 구연하는 등 점차 서사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당곳과 당신본풀이의 전승기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신본풀이는 마을에 신이 좌정한 내력담을 다룬 마을신화이자 마을의 역사로서, 당신의 출자, 좌정경위, 제의와 관련된 사항, 당신과 신앙민 또는 사제자와의 관계 등을 전한다. 특히 당신의 계보가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 등 혼인과 친족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점이 주목된다. 본향당과 가지가른 당의 계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마을 형성 및 마을 간의 관계가 당신본풀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당신이 되는 존재는 초월적인 신격만이 아니라 원혼, 당맨심방 등이 있으며, 이들은 마을의 역사적 사실 속에 존재했던 인물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공동체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전승된다. 당신본풀이에 나타난 이와 같은 당신의 출자는 무속서사시로서 당신본풀이가 지

닌 조상신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3. 미야코지마 후사의 마을신화적 면모

정월 신과세제에 비교되는 가리마타의 제의는 겨울 조신제인 ‘우야-안(ウヤーン)’³⁴⁾이다. 당맨심방과 같이 신과 인간의 매개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제자가 가리마타에는 직능과 섬기는 신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당곳에서 당신본풀이가 불려지는 것과 같이 우야-안에서는 후사가 구연된다. 가리마타의 겨울 조신제인 우야-안의 제의적 특징과 신가(神歌)로 구연되는 후사의 마을신화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키나와본도(沖繩本島)의 남서쪽 326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미야코지마(宮古島)는 오키나와본도를 중심으로 한 류큐왕국에 의해 1500년경 복속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미야코지마의 정치적 지배권자인 나카소네 토요미야(仲宗根豊見親)는 야에야마(八重山) 제도에서 일어난 류큐왕국에의 반란을 진압하고 류큐왕국의 정치적 대리자로 미야코지마를 다스리게 된다. 이후 류큐왕국의 종교정책에 따라 신녀조직이 편성되기도 하지만, 정치적 지배를 받으면서도 토착신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³⁵⁾

미야코지마는 주변에 있는 이케마(池間島), 오가미(大神島), 이라부(伊良部島), 시모지(下地島), 구리마(來間島) 등 다섯 섬을 합병하여 2005년 미야코지마시(宮古島市)로 승격하면서 행정적인 변화를 겪었

34) ‘우야간(ウヤガン)’이라고도 하는데, 가리마타의 원음에 가까운 ‘우야-안’을 쓰기로 한다.

35) 安里進 外 共著, 《沖繩縣の歴史》, 山川出版社, 2004. pp.93-96.

다. 면적 158.7km²의 미야코지마는 대체로 평탄하고 낮은 대지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산악지역과 커다란 호수나 하천 등은 없다. 생활용수는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한다. 섬의 중심도시인 히라라(平良)에서 북쪽으로 13.5km 떨어진 가리마타(狩俣)는 미야코지마(宮古島)의 북쪽 해안에 자리잡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가리마타의 인구는 702명, 세대수는 280호이다. 주된 생업은 사탕수수, 잎담배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큰실말(갈색해조류)양식, 산호초 해역에서의 어업 등이다.

히라라에서 가리마타로 직통하는 ‘大道(ウフンツ, 우훈츠)’를 끼고, 현재는 북쪽과 남쪽에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191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쪽 지역은 농경지였다. 그전까지의 거주지대는 우훈츠의 북쪽에 한정되고, 동·남·서쪽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북쪽에는 해발 50m 정도의 작은 구릉이 연이어 형성되어 있다. 돌담과 구릉으로 구획된 생활공간을 ‘마-쿠(ミヤーク)’라고 하는데, 중앙·이 세상·이승 등의 개념이 아닐까 추정한다.

마을을 둘러싼 돌담에는, 동·중앙·서쪽에 각각 ‘토-라(トーリヤ)’라는 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가 가리마타의 출입구였다. 거주지대의 북쪽 구릉인 ‘야마(ヤマ)’에는 10여 개의 성소(聖所)가 있는데 각 성소마다 서로 다른 신들이 제향을 받는다. 가리마타의 여성사제자들이 각 성소의 신에 대한 제의를 집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안내 없이는 성소에 일반인들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

거주지대의 남쪽 및 동서에는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바다를 접한 곳에 ‘파이누스마’라고 하는 묘지지대는 가리마타의 옛날부터의 묘지가 밀집되어 있다. 파이누스마(パイヌスマ)를 직역하면 ‘남쪽에 있는 섬’으로, 거주지의 남쪽에 위치해 있음에서 유래한 명칭일 것으로 추정한다. 가리마타 사람들은 이 일대를 부정한 장소로

여겨서 근접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가리마타의 취락지는 북쪽에 신들을 제향하는 성스러운 ‘야마’, 남쪽에는 부정한 ‘파이누스마’, 그 중간에 인간의 생활공간인 ‘야-쿠’ 등 크게 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⁶⁾

생활공간인 야-쿠에는 ‘元(ムトウ, 무투)’라고 하는 제장(祭場)이 전부 아홉 군데 있다. 그 가운데 일곱 곳은 여름제의의 제장이 된다. 겨울제의인 우야-안에는 세 곳의 무투가 사용되는데 여름과 겨울제의 양쪽에 사용되는 곳은 大城元(ウブグフムトウ, 우푸구후무투) 뿐이다.

마을의 각 집안은 각각 여름에는 일곱 무투의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겨울에는 우푸구후무투를 포함한 세 무투에 소속하게 된다. “우리는 ○ 무투의 자손(ファーマー, 화-마)이다”라고 한다. 화-마는 자손의 의미로 몇 개의 작은 남성계통 혈연집단에 의해 구성되어 무투에 모여 제의를 진행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 후, 시집이 속한 무투의 화-마가 된다. 마을 의례의 성격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각 무투마다 최고사제자인 우야파-(ウヤパー)가 그 무투에서 모시는 신의 사제를 맡는다. 특정신의 사제자를 사스(サス)라고 한다. 大城元(우푸구후무투)의 祭神 응마누칸의 사제인 아븨마(アブンマ)를 ‘大城元(우푸구후무투)의 우야파-’ 또는 ‘우푸구후무투의 사스’라고 한다. 우푸구후무투의 우야-안 사제자로는 야마툰마(ヤマトゥンマ), 후시누누스(フサヌヌス), 우푸츄카사(ウブツカサ), 야-누누스(ヤーヌヌス), 사즌마(サズンマ), 분눔마(ブンヌンマ)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세 무투마다 각

36) 内田順子, 《宮古島狩俣の神歌—その繼承と創成》, 思文閣, 2000. pp.3-6.

外間守善,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심우성 역, 동문선, 2008. pp.223-244.

<http://www.city.miyakojima.lg.jp/site/view/index.jsp> 미야코지마시 공식사이트 참조.

직능에 따른 사제자들이 조직되는 방식이다. 이 사제자들은 여름 제의에는 다시 일곱 무투로 재조직된다.³⁷⁾ 사제자를 맡는 여성은 자기 집안이 어느 무투에 속해 있든지 그 사제자를 맡고 있는 동안은 사제자가 소속된 무투의 제의에 종사한다. 사제자를 은퇴한 이후에는 자신의 집이 소속된 무투의 제의에 참가한다.

가리마타의 마을 제의는 여름과 겨울 등 계절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력 1월부터 9월까지의 여름제이가 행해지며 주로 풍년제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2월 콩, 3월 보리, 6월 조(粟) 등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양제가 진행되며, 이 때 불려지는 신가는 타-비, 파-시, 니-리 등 교술적 성향이 강한 서사시가 구연된다. 여름 제의에서는 남성사제자 집단과 여성사제자 집단이 무투를 중심으로 각각 조직된다.

남성사제자 집단과 여성 사제자 집단은 서로 각자의 파-시와 타-비를 구연하게 된다. 파-시와 타-비는 앞부분에서 대체로 여러 신명을 들어 각 신격을 찬양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뒷부분은 자손의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는 내용이 불려지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이 나타난다. 따라서 파-시와 타-비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신가를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³⁸⁾

그런 반면 후사는 여성사제자 집단이, 니-리는 남성사제자 집단이 구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사는 여성사제자 집단이 겨울 조신제(祖神祭)에서, 니-리는 남성사제자 집단이 여름 풍년제에서 구연한다. 후사 가운데 마을 시조신에 의한 첫 인간 자손의 이야기를 다룬 <眞津眞良のフサ(마즈마라의 후사)>의 내용과 <祖先ニ一リ(조상 니-리)>의 2

37) 内田順子, 같은 책, p.34

38) 남녀가 함께 자리하여 부르지 않고 각각의 사제자 집단을 구성하여 신가를 부르는 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 3장 내용이 유사하지만 신가의 성격과 목적에 있어서 상이한 점이 주목된다. 니-리는 후사에 비해 정치적 지배자의 위계적 전통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니-리의 5장에서 16세기 초 미야코지마의 정치적 지배자로 등장한 나카소네 토요미야(仲宗根豊見親)의 위업을 찬양하는 데서 분명해진다. 그렇지만 후사에서는 마을 조상들이 겪은 다양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을의 조상신으로 좌정한 내력이 전개되고 있다.³⁹⁾

음력 10월부터 12월까지의 겨울제의로 조상신인 ‘우야-안’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조신제가 행해진다. 우야-안(祖神祭)은 가리마타의 시조신인 응마누칸(ンマヌカン, 母神)을 모시는 제의로서, 이 제의과정을 통해 시조신과 여러 마을 공동의 조상신들이 여성사제자에게 강림하게 된다. 우야-안이 진행되는 동안 여성사제자들이 곧 시조신이고 조상신인 것으로 마을사람들은 관념한다. 겨울제의 우야-안은 여성사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며 남성사제자는 배제된다.⁴⁰⁾

우야-안의 사제자 선출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음력 2월에 ‘2월 마-라마이(マ-ラマイ 또는 아자마-라마이 アザマ-ラマイ)’라는 방식을 통한 선출이다. 마을 외부의 유타(ユタ, 샤먼)를 세 군데 찾아가서 과거 1년간 행해진 제의에 관해 신에게 부족함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묻고 마을 제의에 관한 여러 가지를 점치는 행사이다. 이 때

39) 따라서 니-리와 후사의 구연자 집단·제의·서사시 내용 등에 관해서도 별도의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앞의 파-시와 타-비가 남녀 집단가 각각 유사한 내용의 서사시를 구연하면서, 니-리와 후사는 남녀 집단이 각각이 구연하는 서사시 내용 및 서사시를 구연하는 제의의 성격이 다른 것이 확인되며, 이는 미야코지마 서사시 전반에 관한 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40) 内田順子, 같은 책, p.192

어느 사제자로는 몇 년생의 여성이 적합한지, 간지(干支)를 점친다. 그 간지에 의해 여러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출한다. 무투 제의의 책임자인 우야파-, 특정신의 제의를 맡는 사스는 이 방법에 의해 선출된다. 단, 꿈을 꾸거나 자신이 그 사제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한 영적인 느낌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나서는 경우도 있다. 다른 방식은 우야파-의 의뢰에 의한 경우로, 우야파-와 사스를 제외한 다른 사제직의 선출 방법은 대체로 이 방식에 의존한다. 또 다른 방식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계승하는 방식으로 화-마-의 ‘집안’을 중심으로 하는 사제이다.

사제자들은 공동체 제의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집안에서 선출된 우야-안은 마을 사스들이 모이는 제의에도 참가하고, 마을 제의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마을에서 선출된 이봄마 등의 우야파-는 각 가정에서의 제의도 집행한다. 샤먼적 성격을 지닌 야-키자스(ヤーキザス), 무누스·유타(ムヌス・ユタ), 칸카카리랴(カンカカリリヤ) 등은 개인적 의례 집행자이지만, 각각의 무투에 소속되어 의례에 참여한다. 음 2월에 우야파-로 선발된 여성들은 무투의 신에게 차를 바치는 의례를 시작으로 선배 사제자들이 구연하는 신가를 외워야 한다. 전임 사제자가 적어 놓은 필사본을 빌려 적으면서 외우기도 하는데, 전임자로부터 억양, 선율 등의 훈련을 엄격하게 받는다.⁴¹⁾

우야-안에 참여하는 여성사제자들은 머리에 덩굴풀로 만든 草冠(カウス, 카우스)을 쓰고, 손에는 작은 막대기 다발이나 지팡이를 들고 덩굴풀로 만든 토우즈루모도기(トウズルモドギ)라는 띠를 허리에 맨 의상을 하게 된다. 이 모습은 가리마타의 조상신인 우야-안을 본뜬 형상이

41) 内田順子, 같은 책, pp.32-44 참조.

라고 한다. 석 달 동안 총 5회에 걸쳐 행해지는 우야-안(祖神祭) 때마다 사제자들은 신성한 산(神山)의 니시마(ニシマ, 根島)라는 오두막에서 은둔생활을 하며 조상신과 일체화하는 기간을 갖는다. 이 때 신가(神歌)로서 많은 후사(フサ)가 불려진다고 하는 데, 이 기간의 의례는 모두 비의(秘儀)로 진행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는다.⁴²⁾ 마을공동체의 의례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제자가 되어 집행하는 형식이다. 마을신화와 신앙이 신앙공동체인 마을 구성원을 통해 전승되기 때문에 신앙 및 제의와 관련한 금기 등이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이라고 하겠다.

우야-안은 음10월에서 12월 동안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 지-부바나(ジーブバナ)는 먼 조상신의 신령을 맞아들이는 영신(迎神)제의이다. 2회 이다스우푸나(イダスウプナー)는 새로 취임한 사제자의 성무의례적인 성격을 지닌다. 3회 마투가야(マトウガヤ)는 마을의 부정을 쫓아내는 의식이 중심을 이룬다. 4회 아-부가(ア-ブガー)는 농작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가 중요하게 행해진다. 5회 투디아기(トゥディアギ)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을 마을수호신·시조신에게 약속받은 것을 확인하고, 신들을 돌려보내는 송신(送神)의례적 특징이 나타난다. 우야-안의 제의 절차⁴³⁾는 다음과 같다.

1회 지-부바나(ジーブバナ) - 음 10월 初亥日~午日(4박5일)

2회 이다스우푸나(イダスウプナー) - 음 11월 初酉日~巳日(5박6일)

니스누야마(ニスヌヤマ)라고 부르는 성스러운 산(神山)에 은둔했던 우야-안들은 2일째 밤 소리없이 새로이 우야-안으로 선출된 여성의 집

42) 内田順子, 같은 책, pp.139-141 참조.

43) 眞下厚, 《聲の神話—奄美・沖縄の島じまから—》, 瑞木(みつぎ)書房, 2003. pp.250-254

을 방문하여 그녀를 산으로 데려간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야마누후시라이 우이나우누마누스”라는 후사에 의해서 새로 선출된 우야-안의 가족들은 신에게 숨겨져 있던 여성이 다른 우야-안들에 의해 무사히 발견된 것을 알게 된다.

4일째 새벽 우야-안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마이니아-무투(前の家ムトゥ), 우푸구후무투, 니시이누야무투(西の家ムトゥ) 등의 순서로 순회하며 접대를 받고 후사를 불러준다. 다시 산으로 갔다가 오후에 무투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니시이누야무투, 우푸구후무투, 마이니아-무투 순으로 돌며 각 무투의 마당에서 후사를 구연한다. 이 때에는 후사누누스의 주도에 의해 7종류의 후사가 구연된다.

3회 마투가야-(マツガヤ) - 음 11월 申日~子日(4박5일)

조상신에 의해 마을의 부정을 씻는 스마바이라는 행사가 중심이다. 2일째 밤에 우야-안들이 산에서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고 몸을 삼가고 있다. 우야-안들은 마을을 순회하며 부정을 씻는 의례를 진행하는데 이를 보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다. 3일째에는 우야-안들이 하산하여 마이파나다라는 돌담 위에 마을을 향해 두 줄로 서서 후사를 낭송한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새로 취임한 사제자들의 머리에 신령을 상징하는 장식물을 꽂고 신혼(神婚)을 의미하는 비의(秘儀)가 행해진다고 하는데 이 역시 금기라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4회 아-부가-(ア-ブガ) - 음 11월 寅日~辰日(2박3일)

우야-안들은 마을 동쪽 변두리에 있는 성지(聖地) 아-부가까지 행진해서 밭의 부정을 쫓아내고, 농작물을 풍작을 기원하는 의례를 진행한다.

5회 투디아기(トゥディアギ) - 음 12월 初申日~寅日(4박5일)

산에서 은둔하던 우야-안들은 마을에 내려와서 후사를 부르고는 다시 산으로 모습을 감추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투디아기(トゥディアギ)의 아사-안(アサ-ン)이라는 의례는 亥日 밤 11시경 우야-안들이 산에

서 내려와 마이니아-무투(前の家ムトウ), 우푸구후무투, 니시이누야무투(西の家ムトウ) 등을 순회하며 각각의 무투에서 후사를 부른다. 이 때 후사를 선창하는 사제자는 각 무투의 사스이다.

이와 같이 마을 조신제는 설촌(設村)의 시조신을 비롯하여 마을과 관련된 여러 신들이 매년 한 번 자손들의 마을을 방문하여 불길한 일을 쫓아내고, 농작물의 풍요를 약속해 준 후 돌아간다는 형식을 취한다. 신앙공동체가 마을공동체와 일체화 되어 있어서, 마을신화와 신앙이 개인·집안·마을과 강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제자의 조직이 아홉 무투를 중심으로 체계화·위계화 되어 있으며 사제자의 직능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⁴⁴⁾

조신제 우야-안에서는 반복해서 마을의 부정을 정화시키고 사악한 기운을 마을에서 쫓아내는 제의인데 이때 불려지는 신가(神歌)는 모두 후사라고 한다. 후사에서 죽은 혼을 불러내고 그 죽은 사연을 밝혀줌으로써 사악한 기운을 잠재우고 정화한다는 관념은 무속적 신앙에 기초한다. 우야-안에서 후사가 구연되기 전에 하라이구이(ハライ聲), 야-카-구이(ヤーチャー聲)가 불린다. 이는 당신본풀이의 구연 전에 베포도업침이 불려져서 당신본풀이의 구체적인 조상신에 대한 창세와 관련된 일반신적 성격이 형상화된 점과 대비된다.

하라이구이는 2회 이다스우푸나-(イダスウブナー)와 5회 투디아기(トゥディアギ)에서 아빤마에 의해 불려진다. 야-카-구이는 5회 투디아기의 아사-안에서 후사가 구연되기에 앞서서 아빤마에 의해 불려진다.⁴⁵⁾

44) 内田順子, 같은 책 p.34에는 각 무투의 사제자 조직표가 제시되어 있다.

45) 上原孝三, <宮古島の祭祀歌謠からみた女神>, 《東アジアの女神信仰と女性生活》野村伸一 編, 慶應義塾大學出版, 2004. pp.296-301.

福田晃, 《神語り・昔語りの傳承世界》, 第一書房, 1997. pp.43-44.

하라이구이는 시조신인 응마누칸이 물을 구하러 이동하여 마지막에
는 가리마타의 이스가-우물을 발견하는 과정을 서술한다.

穩かな百神/ハライハライ(以下は省略)/和かな世直さ/ハライハライ(以
下は省略)

天道のお蔭で/恐れ多い神のお蔭で
アサ太陽のお蔭で/親太陽のお蔭で
月神(ユーツキ)のお蔭で/月神(ユーツィダ)のお蔭で
根立て主である私は/恐れ多い神である私は
四ムトゥの神は/四威部の神は
神は穩やかに/主は穩やかに
母の神である私は/恐れ多い大神は
一番新しくは/一番始めには
タバリ地に降りて/神の地に降りて
カナギ井戸の水を/神の井戸の水を
美しい口に受けて/立派な口に受けて(飲んでみると)
カナギ井戸の水は/神の井戸の水は
水量は多いけれども/水量は多いけれども
水の甘味がないので/水の甘味がないので
この水はだめだ/この水はだめだ
別の所を搜してみよう/別の所を搜してみよう(中略)
磯の井戸の水は/神の井戸の水は
水量は少ないけれど/水量は少ないけれど
水がうまいので/水がうまいので
この水に決めるのだ/この水に決めるのだ
住居をこちらに定めた/住居をこちらに定めた
島立てをされて/村立てをされて

住み良い所だが/住み良い所だが
 寅の方の風が吹いたら/神の根の方の風が吹いたら
 海鳴りが恐ろしい/潮鳴りが恐ろしい

은후한 百神/하라이 하라이(이하 생략)/은화한 世直/하라이 하라이(이하 생략)

天道의 神 음덕으로/황공한 신의 음덕으로
 아사티다(父太陽)의 음덕으로/우야티다(親太陽)의 음덕으로
 밤의 달의 음덕으로/밤의 태양의 음덕으로
 근본을 세운 주인인 나는/황공한 신 大神은
 네 무투의 신이여/네 이비(성소)의 신이여
 신은 조용하게/주인은 조용하게
 母神인 나는/황공한 大神은
 가장 처음에는/맨 처음에는
 타마리地(지명)에 내려와/신의 땅에 내려와
 카나기 우물의 물을/신의 우물의 물을
 아름다운 입으로 마시니/훌륭한 입으로 마시니
 카나기 우물 물은/신의 우물 물은
 수량은 많지만/물은 많지만
 물맛은 없어서/물맛이 없어서
 漚水로는 맞지 않는다/기원하는 물로는 맞지 않는다
 다른 곳을 찾아 보자/ 다른 장소를 물색하자
 (중략 : 쿠루기가-우물은 물맛이 좋으나 수량이 적다 → 아마다가-우물
 은 수량이 많으나 바닷물이 섞여 있다 → 이스가-우물은 수량이 적지만
 맛이 뛰어나서 漚水에 적합해서 정착한다)
 磯(이스)의 우물 물은/신의 우물 물은
 수량은 적지만/물의 양은 적지만
 물이 맛있어서/물맛이 좋아서
 漚水가 되는 것이다/기원하는 물로 맞는 것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섬의 방향을 정하고/마을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편한 곳이 있으나/자리잡고 싶은 곳이 있으나
 寅方의 바람이 (불어서)/신 있는 곳의 바람이
 바다 소리가 두렵다/ 파도소리가 두렵다⁴⁶⁾

하라이구이는 가리마타의 시조신 응마누칸이 하늘에서 내려와 설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응마누칸의 출자, 설촌과정 등은 가리마타의 시조신에 대한 내력을 밝혀 응마누칸과 가리마타 신앙집단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계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시조신 응마누칸의 수식된 표현들은 하늘·태양·달 등의 우주 천체의 일반적인 신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가리마타의 신앙집단인 무투와 제의적 공간으로서의 이비를 수호하고 관장하는 시조신의 성격을 구체화한다.

응마누칸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을 형성하는 핵심은 우물(샘)에 있다. 물의 양과 맛을 따지는 것은 제의에 적합한지 때문이다. 물은 인간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고, 신에의 제의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임을 보여준다. 신에게 좋은 물이 인간에게도 좋은 물인 샘이다. ‘근본을 세운 주인인 나’ 이전에는 3인칭으로 신의 공덕을 칭송한다.

3인칭 서술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이 부분까지를 니후치이구이(根口聲, にふちいぐい)라고 하는데 우야파에 빙의한 무투의 제사신이 우야파를 통해서 스스로 강립하여 서술하는 형식으로 1인칭으로 서술형식이 바뀌게 한다. 니후치이구이는 후사, 타-비, 파-시 등의 각각 앞부분에서 전개되는 공식구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니후치이구이를 통해 가

46) 外間守善·新里幸昭 編, 《宮古島の神歌》, 三一書房, 1972. pp.137-140.

리마타의 신가는 신에 대한 3인칭적 서술에서 빙의한 신에 의해서 신 자신의 자서적인 1인칭 서술로 변화하는 빙의 체험적인 순간을 구현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제자는 인간에서 신으로 변환된다. 신의 내력을 밝히는 대목에서 1인칭으로 변화하는 형식을 통해 시조신과 사제자가 일체화됨을 확인하고, 마을시조신이 행한 최초의 상황과 사건을 재현한다고 하겠다. 야-카-구이(ヤーキャー聲)는 하라이구이의 시조신 내력보다 우야-안의 제의적 성격을 보다 구체화한다.

(생략-하라이구이의 3인칭 구연에서 1인칭으로 넘어가는 니후치이구이 부분으로 동일함)

昔の力であるから/根立てたままであるから
 今年寄せてくる年の/明けている年の
 年を明けてあるから/年を明けてあるから
 親前が許すから/親榮は許すから
 島の根を持っていて/國の根を抱いていて
 天からの日取り/出す神の直る日 (中略)
 これ百十神(神女)は/これ手摺る神は
 島持ちであるから/國抱きであるから
 わたしの(今の)時間の中で/神の時の中で (中略)
 根立て主である私は/恐れ多い大神は
 お殿祈願をよまれて/座敷お願を唱えられて
 よまれてからは/唱えられてからは
 母の神のお陰で/恐れ多い神のお陰で
 許しなされるお陰で/請わしてくださるお陰で
 わたしの根吹くのお聲で/神の玉 眞聲で
 うたい上りとりました/出し上り申しあげました
 昔の力をとりました/根立てたまま申しあげました

옛날의 힘이라서/근본을 세운 그대로라서
 금년 다가오는 해(年)의/밝아오는 해(年)의
 해(年)를 밝게 할 것이니/밝아오는 해를 밝게 할 것이니
 親前(占師)가 허락할 것이니/親榮(택일하는 사람)이 허락할 것이니
 섬의 근본을 지니고 있고/마을의 근본을 품고 있고
 하늘에서 내린 날/신이 선택한 날(중략)
 이 百十神(神女)은/판에 박은 신은
 섬(마을)을 가지니까/마을을 품으니까
 내 (지금의) 시간 속에서/신의 (지금의) 시간 속에서(중략)
 근본을 세운 주인인 나는/황공한 신 大神은
 祭場에서의 기원을 듣고/聖所에서의 기도소리를 듣고
 다 듣고 나서는/ 마음껏 듣고 나서는
 母神 응마누간의 음덕으로/ 황공한 신의 음덕으로
 허락해 주신 덕택으로/청을 들어주신 덕택으로
 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소리로/신의 구슬 眞聲으로
 마음껏 노래 불러 드렸습니다./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모두 올렸습니다.
 옛날의 힘을 얻었습니다./ 근본을 세운 대로 말씀드렸습니다.⁴⁷⁾

‘금년 다가오는 해(年)’를 밝게 할 것이라고 했으니, 한 해의 안녕과 신의 말씀을 통해 축원하는 조신제의 성격을 구체화한다. 신의 시간과 공간을 현재로 옮겨 놓음으로서 신과 인간, 조상신과 자손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이 내려온 이유는 제장의 기원을 듣고 옛날의 그 힘을 재현하는 데 있다. 그 옛날의 힘이 재현되어 마을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라이구이와 야-카-구이를 통해 마을시조신과 관련하여 신의 내력과 하강 이유를 밝혔다면, 이후에 구연되는 후사는 마을과 직접적인 관

47) 外間守善·新里幸昭 編, 《宮古島の神歌》, 三一書房, 1972. pp.113-115.

련을 지닌 조상신들의 내력담이다.

5회 투디아기의 아사-안에서 불려지는 후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본다. 가장 처음 불려지는 후사는 야-누누시이우안마노후사(家の主親母のフサ)이다. 집주인신·어머니신은 하늘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니시마로 하강하여 마야누마즈메라는 여자아이를 낳는다. 가리마타의 시조신에 의한 첫 인간의 탄생인 것이다. 어머니신은 이 아이에게 섬·마을과 후사를 전해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따라서 하라이구이, 야-카-구이에 이어 처음 불린 후사는 시조신에 의한 태어난 인간은 신으로부터 섬과 마을과 후사를 받았다고 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밝힌다. 즉 신은 인간에게 생명과 살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제의에서 부르는 노래까지 주었으니, 인간은 신에게 그의 노래를 들려주는 제의를 해야 하는 관계가 성립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시조신이 집의 신이고 어머니 신으로 자손을 돌본다는 대목에서 분명해진다.⁴⁸⁾

마즈마라 후사(眞津眞良のフサ)⁴⁹⁾는 최초의 인간 마야누마즈메가에서 마즈마라까지 태어난 순서를 밝히고 마즈마라의 뛰어난 베짜기 솜씨를 보여준다. 마즈마라의 베짜는 솜씨는 미야코지마 주변지역까지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 이 후사의 중심내용이다. 시조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에의 탄생과 하강 목적을 명확히 했다면 마즈마라는 인간으로서 특히 여성의 베짜기 솜씨를 통해 문화영웅적인 면모를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⁵⁰⁾

48) 外間守善·新里幸昭 編, 《宮古島の神歌》, 三一書房, 1972. pp.95-97.

49) 外間守善·新里幸昭 編, 《宮古島の神歌》, 三一書房, 1972. pp.61-65. 이하 후사의 본문은 모두 이 책을 참고한 것이다.

50) 정진희(같은 논문, pp.168-173)는 마즈마라의 내용이 니-리에서도 나타나지만 후사에서와 달리 후반부에 마즈마라의 조카 '마부코즈'의 남성영웅적 능력을 중점에 둔 것을 지적했다. 니-리, 하라이구이, 마즈마라의 후사 등에 나타난 호족세력과의 관련

마-무기 후사(ミヤムギのフサ)는 남편인 마-무기가 사촌자매들에게 살해당하자, 그의 아내가 음모를 꾸며 복수하는 내용이다. 남편과 사촌자매들이 묘지터를 빼앗으려 다투다가 자매들이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 남편을 죽인다. 그 아내가 산에 가서 독 있는 열매를 따서 술을 담그고 남편을 죽인 자매들을 불러 술을 따라 준다. 술을 마신 자매들이 죽자 묘터를 차지하고, 묘터를 나눠 자매들도 함께 묻어준다는 내용이다.

이시이도우는 후사(磯殿のフサ)에서 이시이도우는 부유한 자인데,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시이도우가 이라부섬에 갔다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하녀를 데려온다. 남편은 그녀와 늘 함께 지낸다. 그러다가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그녀가 본처를 내쫓아 버린다. 아오리아에 후사(煽りやえのフサ)는 요절한 어머니의 뒤를 이어 다섯 살에 신녀(神女)가 된 아오리아에의 고난과 시련을 노래한다. 마-마 후사(繼母のフサ)는 시어머니와 다른 마을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말다툼 끝에 서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이다.

가니구후지이 후사(兼久大按司のフサ)는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신에게 제의를 하지 않아 죽는 내용이다. 가니구후지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과 술을 준비해두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 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고 번영을 기원한다. 술이 익었으나 신에게 바치지 않고 자기가 마시고 취해 버린다. 술에 취해 머리가 기둥에 부딪쳐서 죽고 만다. 토-나지 후사(トーナジのフサ)는 신(神)의 의상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토-나지라는 사람이 불행한 최후를 마친다는 내용이다. 토-나지가 여자에게 빠져서 신옷(カザリ), 카자리이 바다에 떠내려 간 것도 모른다. 그가 츠카사에게 찾아가 신옷을 행방을 알아내어 배를 타고 바

성만을 다루어서 신가(神歌)로서 세 서사시가 지닌 고유한 갈래적 특성과 서사시 간의 관련성을 간과한 면이 있다.

다로 나간다. 마침 신옷을 발견하여 배로 끌어올리니, 붉은 신옷이 푸른 뱀으로 변해서 토-나지의 몸을 흡아매어 죽인다. 기시이 후사(下司のフサ)는 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의 시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게 한 주인을 원망하는 내용이다. 낚시하는 일에만 빠져 지내다가 하인이 되고 만 바진미누 우이가나(バギン嶺の上金)라는 사람이 주인이 죽은 자식의 시체조차 보지 못하게 하자, 나무에 목을 매어 죽은 내용이다.

하라이구이와 후사는 하늘에서 하강한 시조신 응마누칸에서 인간이 죽어서 된 조상신에의 계보화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시조신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마을수호신으로 좌정한 것이라면 조상신은 사제자, 고귀한 신분, 미천한 신분, 부귀한 자, 가난한 자, 신에게 불령스런 인간 등 가리마타라는 마을공동체 속에서 특별한 죽음으로 기억되는 죽은 영혼이 마을공동의 조상신으로 좌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후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본처와 첩, 주인과 하인 등 가리마타의 생활 전반과 관련된 인간관계와 사회변화를 보여준다. 가리마타를 생활터전으로 하는 개인이나 집안 차원의 사건이나 경험이 마을 전체의 의미로 확대되어 개인·집안·마을이 하나로 일체화하여 공동의 사건과 경험으로 그 의미를 공유한다. 개인과 집단의 일체화가 가능한 것은 시조신을 공유한 신앙공동체가 곧 지연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나의 혈연공동체를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개인의 조상이 곧 마을의 조상이 되고, 마을 신앙 차원에서의 조상신은 곧 개인의 조상신이 되는 것이다.

4. 당신본풀이와 후사의 마을신화적 특질 비교

제주도의 신과세제와 가리마타의 조신제 우야-안은 마을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마을시조신·수호신에 대한 무속적 신앙을 공유하는 마을 신앙민과 사제자의 의례이다.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자연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을’ 공동 신앙적 모태가 마을수호신의 재현을 의례에서 실현한다는 공질성이 발견된다. 마을수호신·시조신과 신앙민의 관계를 신화의 의례를 통해 재체험하게 됨으로써 신앙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다지게 된다. 또한 의례는 신앙공동체이자 지연공동체인 마을구성원이 공통의 운명임을 재확인하고, 마을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마을 역사·신앙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마을신과 일반신의 관계에서 제주도와 미야코지마의 종교적 관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을 넘어서는 우주 및 인류 창세 등을 다룬 일반신격과 마을신격과의 관계를 마을제의에서 어떻게 구연하고 있는지를 통해 고찰할 수 있다. 베포도업침은 추상적인 창세적 상황에서 시작하여 마을당신에 이르는 계보를 마련해 간다고 하겠다. 그런 반면, 하라이구이에서는 추상적인 창세적 상황의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마을시조신이 강림하여 신의 자식인 가리마타의 조상신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계보가 전승된다. 따라서 제주도 마을 당신은 일반신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당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미야코지마의 경우에는 마을시조신과 마을조상신들과의 혈통적 관계를 통해 마을의 혈연·지연적 유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과세제와 우야-안은 마을수호신에게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로서, 마을과 관련있는 사제자에 의해 진행된다. 당곳의

사제로는 당맨심방만이 신과세제를 집행할 수 있다. 당맨심방과 단골은 사제자와 신앙민의 관계로 서로의 직능과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야-안에서는 신앙민이 곧 우야-안의 사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선출 의식을 통해 신앙민은 사제자가 되어 의례 속에서 신과 일체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조상신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우야-안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신앙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한다.

우야-안과 신과세제는 서술형식에서 더욱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당신본풀이는 당맨심방이 신의 내력과 좌정경위를 풀어나간다고 해도, 3인칭의 형식을 취한다. 신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앙민에게 당신에 관한 내력과 당신과 단골의 관계, 제의에 관한 제반사항을 일러주는 형식이다. 신의 내력을 단골에게 전하고 단골의 기원사항을 신에게 전달하는 매개자로서의 기능이 당맨심방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이달춘 심방이 구연한 제주시 건입동 <산지>본향당인 <칠머릿당>의 본문이다.⁵¹⁾

칠머리 좌정호신 도원수감찰지방관, 서편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이라.

도원수 출생호시기가 강남천제국 가달국서 솟아나옴고

하날은 아방이요, 따(地)는 어멍이요.

장성호니 천하명장이라. 남북적이 강성호야 국가 솔난호니

천즈님전 도원수가 입시(入侍)호와

무쇄투구 갑오옷 어열도 비수금 나무왓 보래왓 지치장금

일월이 희롱호고 백만대병 거느려 남북적을 함몰호니

천제 대희호야 도원수를 칭찬호시고 소원대로 호야 준다 호여.

천즈님니 모두 배척(排斥)호시와 백만대병을 거느리고

51) 진성기, 《무가》, pp.331-332.

요왕국(龍王國)에 들어가서 요왕부인(龍王夫人)을 정혀야
제주도 들어와서 한라산 백록담에 진을 쳤다. 황세왓디 진을 쳤다. 사기
왓디 진을 쳐서

혈기를 좇아 칠머리 좌정혀시고,

산지 계판시(啓版時)에 낳는 날 생산츄지혀고 죽는 날 물고 츄지혀시고
장적 호적 츄지혀시고, 앓아 천리 보고 사서 만리 보시던 한집광

요왕해신부인님 만민혜녀와 상선중선 츄지혀시고 서양각국 동양삼국 간
즈손 츄지혀서 장수장명과 부귀를 나수와 주시는 한집입네다.

年年마다 영등제일

2월 초1일 환영영등제

2월 14일 송별제

도원수 감찰지방관과 서해용왕 해신부인이 제주도로 입도하여 좌정
한 내력이다. 도원수는 칠머리에 좌정하여 생산·물고·장적·호적을
차지하고, 용왕부인은 해녀·배·외지 나간 자손의 수명과 부귀를 관장
하는 신격임과 제일을 밝히고 있다. 사제자가 신의 내력과 신격·제일
을 3인칭 형식으로 구연하는 방식이다.

우야-안에서는 신에 대한 예찬이나 신에의 기원은 3인칭 형식이지만,
신의 내력은 신 자신이 되어 서술하는 1인칭 형식으로 변한다.

天道のお陰で 恐れ多い神のお陰で

アサ太陽のお陰で 親太陽のお陰で

月神のお陰で 月神のお陰で

根立て主である私は 恐れ多い神である私は

四ムトゥの神は 四威部の神は

神は穩やかに 主は穩やかに

母の神である私は 恐れ多い大神は

一番新しくは 一番始めには

タバリ地に降りて 神の地に降りて⁵²⁾

天道의 神·황공한 신의 덕으로
 아사티다(父太陽)·우야티다(親太陽) 덕으로
 밤의 달·밤의 태양의 음덕으로
 근본을 세운 주인인 나는·황공한 신 大神은
 네 무투의 신이여/네 이비(성소)의 신이여
 신은 조용하게/주인은 조용하게
 母神인 나는/황공한 大神은
 가장 처음에는/맨 처음에는
 타바리地(지명)에 내려와/신의 땅에 내려와

3인칭에서 1인칭으로의 변화는 신앙민이 사제자이고, 사제자는 곧 신이 됨으로서 신과 신앙민이 하나됨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우야-안은 신·사제자·신앙민의 일체화를 통해 마을시조신과 조상신 그리고 그 자손이 하나됨을 지향하는 의례라고 하겠다.

당신본풀이와 후사에 나타난 신격의 특징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당신본풀이	후사
(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당신이 되는 경우	(가1) 하늘의 존재가 하강하는 경우	<오동본향>, <각시당>, <용강본향> 등	<하라이구이>
	(가2) 땅에서 솟아난 경우	<세화본향>, <색달리본향> 등	-
	(가3) 외지에서 도래 하는 경우	<칠머릿당>, <송당본향> 등	-
(나) 인간이 당신이 되는 경우	<축일당>, <신흥본향> 등	<마즈마라 후사> 이하 모든 후사	
(다) 자연물이 당신이 되는 경우	<두리빌렛당>, <윤동지 영감당>, <일뢰낭거리>, <서물당> 등	-	

52) 外間守善·新里幸昭 編, 《宮古島の神歌》, 三一書房, 1972. pp.137-138.

당신의 주체는 초자연적인 존재·인간·자연물 등 다양한 대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후사의 주체는 초자연적 존재와 인간뿐이다. 후사의 초자연적 존재는 바로 마을시조신임을 상기한다면, 이는 마을시조신의 신성성과 위엄을 극대화한다. 가리마타라는 마을공동체의 조상이 바로 마을수호신이 되어 마을을 보호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조상과 후손이 이룩한 혈연적·지연적 공동체의 마을 역사이면서 신앙공동체의 신앙 역사임을 확인하게 된다.

인간이 마을조상신으로 좌정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신과 제의에 불손한 행위로 인한 죽음, 원한을 가진 죽음 등이 크게 작용한다. <신흥본향>과 <이시이도우 후사>, <야-무기 후사>는 원한을 지닌 채 죽은 인간의 혼이 조상신으로 모셔진다. <축일당>과 <도두본향>에서 당신에 대한 불손으로 죽은 인간이 오히려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가니구후지이 후사>와 <토-나지 후사> 역시 신에 대한 제의를 지키지 않거나 신과 관련된 물건을 함부로 한 죄를 받아 죽는 인간이 오히려 조상신으로 모셔진다. 신에 대한 제의의 엄격성과 신의 위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로 인해 죽은 인간이 오히려 조상신으로 모셔짐을 통해 원혼을 위로하는 무속신앙의 특질을 알 수 있다. 편안한 죽음보다 원한이나 불행한 죽음이 살아 있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 원혼을 위로하고 조상신으로 모시는 제의적 특질은 무속적 신앙에 기초하는 것으로 당신본풀이와 후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마을 당신으로 좌정하는 대상이 신·인간·자연물 등으로 나타난다. 토착신에만 국한되지도 않아서 외래에서 입도한 신도 당신으로 좌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단골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인 당신은 신의 출자에 있어서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야-안의 조상신은 가리마타의 지연적·혈연적 공동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인간에 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야-안은 개인·집안·마을이 하나의 공동된 신앙공동체로 작용하면서 마을신화가 곧 개인·집안의 신화가 된다. 그렇지만 당신본풀이는 마을신화이기도 해 개인·집안의 신화는 아니다. 개인·집안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조상신의 조상신본풀이가 전승된다. 제주시 화북동의 <운동지영감당>⁵³⁾에서 윤칫할으방이 바다에서 ‘석상미력 돌꾼체’를 낚아 당을 설립한 내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윤칫할으방의 개인적 사건이 마을 전체로 확대되어 마을 당신으로 돌꾼체가 섬겨지게 되는 것으로 개인의 조상이 곧 마을의 조상으로 관념하는 본풀이이다. 그런데 동일한 소재와 사건이 조상신본풀이로도 전승되는데, <선씨일월본풀이>가 그 예이다.

<선씨일월본풀이>⁵⁴⁾는 제주시 화북 안씨택 조상신본풀이이다. 이 집안에서 내려오는 조상신의 신체가 바로 ‘은진미력 요왕미력 돌꾼체’이다. 안씨택 넷째 아들이 돌꾼체를 건져 올리지만, 셋째 아들만이 돌꾼체를 지키고 있다가 돌꾼체가 여자로 변한 후 둘이 혼인하여 자손 번창시킨 내력이다. <운동지영감당>과 소재도 같을 뿐 아니라, 개인에게 일어난 우연한 사건의 성격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한쪽은 당신으로, 다른 쪽은 조상신으로 좌정한 점이 다르다. 당신본풀이는 집안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을과 개인·집안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마을신앙에서 조상신앙의 분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우야-안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집안·마을이 일체화하여 공통의 시조신과 조상신을 모아서 개인·집안·마을의 신화와 신앙이 일체된 점과 대조적이다.

53) 진성기, 《무가》, pp.336-338.

54) 현용준, 《무속》, pp.714-716.

두 지역의 이러한 차이는 마을사제자와 신앙민의 관계 설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제자와 신앙민이 지연적·혈연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관계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마을과 개인(집안)의 신화와 신앙에도 그 영향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당맨심방과 그 마을과의 지연적 기반이 다른 현상이 일어날수록 당신앙과 당신화의 전승력은 약화되어갈 수밖에 없다.⁵⁵⁾

제주도 당신앙을 바탕으로 마을신화로서 당신본풀이와 가리마타의 우야-안에서 전승되는 후사를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 제주도·한반도와 미야코지마·오키나와의 무속신앙과 신화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 제주도와 미야코지마는 서사시와 신화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승된다. 무속신앙이 의례를 통해 살아있는 무속의 현장이다.

전승의 엄격성을 통해 미야코지마의 무속신앙과 신화, 의례는 비교적 무속적 원시성을 발견할 수 있는 본보기로서 소중하다. 신앙과 신화에 있어서도 마을과 개인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통된 신화와 신앙을 마을의례 속에서 공유하고 있음을 보았다. 무속신앙과 신화가 집단에서 개인화되어 가는 과정을 미야코지마와 제주도의 무속과 마을 의례를 비교함으로써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무속서사시의 서술형식에 나타난 차이에서도, 가리마타의 경우 1인

55) ‘제주도 본풀이’ 학술세미나(2008년 11월 15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주최)에서 이 글의 토론자인 강경희 선생님께서 ‘무투’는 마을을 형성한 혈연집단의 종가(宗家)이면서 마을수호신을 모시는 마을공동체의 성소로서 제정일치의 사회적·역사적 배경이 되는 측면과 제장(무투)의 신의 속성과 신앙민의 관계가 두 지역의 신의 속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됨을 지적하셨다.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해서는 미야코지마의 전반적인 서사시와 의례를 다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칭적 서술형식을 신의 빙의로 보는 관점이나, 2회 우야-안의 핵심으로 사제자로 새로 선출된 신앙민이 사제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은 무속의 사제자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킨다. 강신이나 세습을 통해 무당이나 사제자가 되는 제주도·한반도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지역의 신앙집단으로서 마을·개인(집안)의 관계, 제의와 서사시의 비교를 통해 무속신앙과 무속서사시의 공시적·통시적 고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 문헌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2. p.29
- 김현선,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제28집, 비교민속학회, 2005. pp.239-258
-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2007. pp.24-81
- <제주도와 沖繩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회》, 2008. pp.63-101
-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16집, 2003. pp.403-448
-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민속학연구》 제10집, 2002. pp.111-139
-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2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pp.257-303
- 아사토 스스무(安里進), <유구왕국의 역사와 문화>,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2007.
- 外間守善, 《오키나와의 역사와 문화》, 심우성 역, 동문선, 2008.
- 임동권, 《한국에서 본 일본의 민속문화》, 민속원, 2004.
- 정진희,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 진영일, <고대탐라국의 형성>, 《탐라, 역사와 문화》,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1998.
- 진영일, <제주와 오키나와의 교류사>, 《탐라와 유구왕국》, 국립제주박물관, 2007.
- 하우봉 등, 《조선과 유구》, 아르케, 1999.
-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8.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安里進 外 共著, 《沖繩縣の歴史》, 山川出版社, 2004.

上原孝三, <宮古島の祭祀歌謡からみた女神>, 《東アジアの女神信仰と女性生活》 野村伸一 編, 慶應義塾大學出版, 2004.

内田順子, 《宮古島狩俣の神歌—その繼承と創成》, 思文閣, 2000.

福田晃, 《南島説話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92.

福田晃, 《神語り・昔語りの傳承世界》, 第一書房, 1997.

外間守善・新里幸昭 編, 《宮古島の神歌》, 三一書房, 1972.

眞下厚, 《聲の神話—奄美・沖繩の島じまから—》, 瑞木(みつぎ)書房, 2003.

Abstract

Comparison of the shaman epics Jeju island and Okinawa
- focusing on Dangshinbonpuri and Miyako island Fusa -

Lee, Kyong-Ae*

Having locally similar traits Jeju island and Okinawa show in common that there are various epics and myths based on shamanistic faith and they have fluently transmitted the epics and myth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mong those common things, the myth of village and the shaman rite - which show their serving a tutelary deity or an ancestor deity around the village community - in these two regions are compared in this thesis. The shaman epics sung during the rite make clear the origin of a deity and treat the relationship of the village and the deity and it of the deity and priest. It is tried to make clear the village mythological characteristic of shaman epic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Jeju island Dangshinbonpuri and Okinawa Miyako island Fusa which were transmitted from the rites of villages.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Dangshinbonpuri sung in Dang rite of Jeju island with Fusa transmitted in Uya-an of Miyako island, I could see that the shaman faith, the myth and the ceremony of Miyako island kept up their shaman aboriginality through the strict transmission. But in Jeju island in which the village and the individual are differentiated, I found out the shamanistic faith and myths were coming to be individual from a group and studied how this affected village myths and rites. I considered that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study is

* Kyonggi University

possible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se two regions -the relationship of the village and the individual (family) as a group of faith and shaman rite and epics.

Key Words

village myth, village rite, shaman epics, shaman faith, shaman rite

교신 : 이경애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국문학과
(E-mail : rudo910@hanmail.net 전화 : 010-9569-0858)

최초 투고일 2008. 12. 8

최종 접수일 2009. 2. 13